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 조선업 역사상 첫 노사정 상시 대화협의체 출범, 양대 노총 모두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발에 힘을 보탰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도약 계기를 맞아 대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한 우리 조선업이 다시 뛰고 있다.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업 현장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숙련인력은 부족하고, 원하청 간 격차와 호황·불황을 오가는 경기 사이클 속에 반복되는 고용 불안이 청년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5월 13일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사는 두 달여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 협의체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모두가 “조선업에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함께 살리고 키우자”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노연에 더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가 함께하는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이어진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노사 협의로 AI를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 그간 타운홀미팅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받아 의제를 더하고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작은 과제라도 노사정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입법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라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향로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 개요
2.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원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1)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3-4333)
담당 부서 < 총괄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붙임1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 개요

□ 일시: '26.7.13.(월) 10:3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F 기자회견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자

- (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 (사) 주요 조선사(HD현대중, 삼성중,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정)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세부일정(유튜브 라이브 진행)

※ 전체공개

구분	시간(소요)		주요 내용	비고
발족식	10:30~10:4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40~11:00	20'	개회사, 축사, 모두발언	내빈
	11:00~11:03	3'	운영계획안 발표	노동부
	11:03~11:08	5'	기념촬영	전체 참석자
이동 등 정리				

※ 발족식 이후 운영협의체 → 실무협의체 순으로 진행 (비공개)

붙임2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원

구분		운영협의체	실무협의체
노	사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김유철 (조선노연 공동의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이태현 (조선노연 공동의장) 김승봉 (HJ중공업 지회장)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국장) 유영남 (한화오션 지회 대외협력실장)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김성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박성수 (HD현대중공업 상무) 황원준 (삼성중공업 상무) 민병호 (한화오션 책임)
		권창준 (노동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정환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형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수진 (노동부 노동정책관)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우태현 (경사노위 기획위원)
공 (추천)	노	실무협의체와 동일	안재원 (前 금속노조 연구원장)
	사	실무협의체와 동일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	실무협의체 중 1인	배규식 (前 노동연구원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정흥준 (서울과기대)

*가나다 순